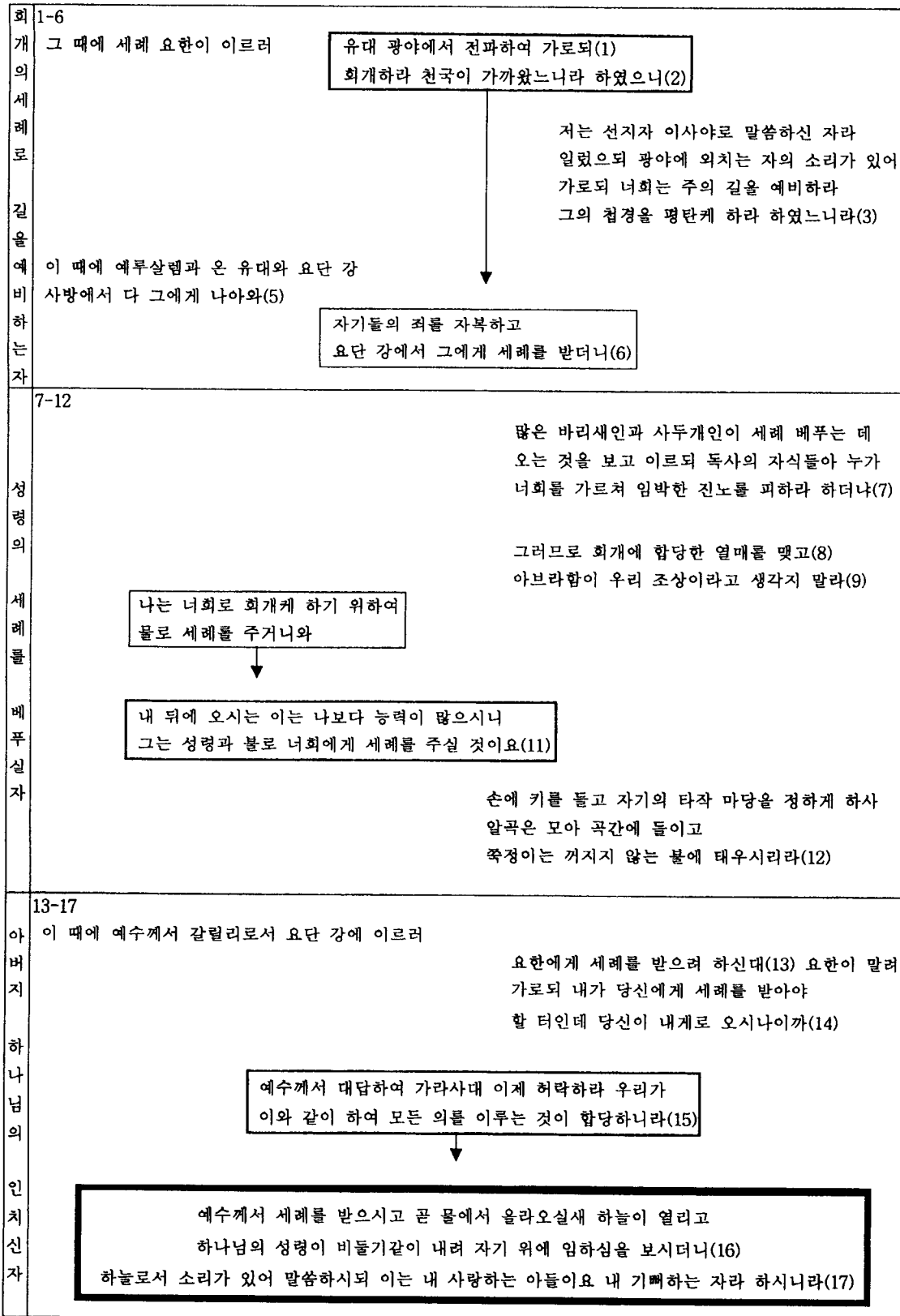


마태복음 3장 개관도표

주제 :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요절 :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3장의 중심점은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13-17절에 있고, 핵심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본 장은 왕이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위한 위임식(委任式) 장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 오시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예표가 대제사장의 위임예식(委任禮式)입니다.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물로 씻기고, 관유(灌油)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라”(출 29:1-7) 하십니다. 본 장에서 주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관유(성령)로 부음을 받으신 셈입니다. 앞 부분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첫째 단원)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누가 오신다는 말인가?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자”(둘째 단원)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신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셋째 단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1-6) 회개의 세례로 길을 예비하는 자

둘째 단원(7-12)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자

셋째 단원(13-17) 아버지 하나님의 인 치신 자

첫째 단원(1-6) 회개의 세례로 길을 예비하는 자

“그 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였으니”(1-2).

① “그 때에” 하고,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2장에서 3장으로 넘어오는 사이에 30년이란 세월을 뛰어 넘고 있습니다. 그보다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오기까지 무려 4백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 때”란 어느 때인가? 바울은 이를 설명하기를,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엡 1:9)이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갈 4:4)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때”란 우연이란 없습니다. 예정하신, “때가 찬 경륜” 중에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13절에서도,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합니다. 4:1절에서도,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합니다. “때가 차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고, “때가 찬 경륜” 가운데 길 예비자를 여섯 달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②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3상) 합니다. 그러니까 길 예비자를 보내심도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성취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1-39장까지는 주로 죄를 책망하며 심판을 경고는 내용입니다. 그런 후에 40장부터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사 40:1-2) 하고, 주로 복음을 말씀하는 문맥입니다. 그런 문맥에서 첫 말씀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사 40:3) 하고 길 예비자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서의 순서와 일

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③ 그렇다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임무가 무엇인가? “왕이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맞을 준비를 하여라” 하고 길을 예비하는 일입니다. 세상 임금이 행차할 때도 길 예비자들이 앞서가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길을 평탄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장애물은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맞을 준비란 “회개”(2상)입니다.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요, 그의 첩경을 평탄케”(3하) 하는 것입니다.

④ “이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5-6) 합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11상)한 “물세례”였습니다. 물세례가 죄를 사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성령세례로 인도하는 “길 예비”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라고 자동적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요, 그들이 지키노라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요, 그들이 자랑하는 “할례”가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대주의, 의식주의, 형식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길 예비자인 요한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순탄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둘째 단원(7-12)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7).

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복음서에 있어서 여기가 처음입니다. ㉠ 바리새인이란 누구들인가? “바리새”라는 뜻은 “분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너희들과는 다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빌 3:6)라고 자부했던 것처럼 가장 잘 믿노라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이란 주님께서 폭로하신 대로 “회칠한 무덤”(23:27)과 같은 외식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 사두개인들이란 누구들인가? 이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귀족들로, 제사장과 정치적인 권력을 장악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지적인 사람들로서 영도, 부활도, 천사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② 이런 자들이 세례 베푸는 곳에 무엇 하러 나타났단 말인가? 회개하고 세례 받기 위해서란 말인가? 그들을 향해 ㉢ “독사의 자식들이”(7중) 하고 질책을 합니다. 주님께서도 “뱀들이 독사의 새끼들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23:33)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7하) 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종교지도자들이라는데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대단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요한복음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요 1:19) 하고 그의 정체성을 확인케 했다는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보아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왔다는 것은 좋은 뜻에서가 아니라 요한을 요주의(要注意) 인물로 여기고, 그의 영향력을 꺾기 위해서라고 여겨집니다. 요한의 지적대로 “독사의 자식들”이었다면 그들은 사탄의 “길 예비자”로 왔다고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4장에서 곧바로 “사탄”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③ “그러므로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8-9) 하고 그들의 심장을 찢습니다. 겉으로는 외식(外飾)하고, 속에는 교만(驕慢)이 가득한 것이 종교지도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다”(요 8:39-44)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끝내 아버지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음모가 벌써 길을 예비하는 단계에서 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④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11) 합니다. 이는 자신의 임무와 주님의 임무의 다른 점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대조되어 있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여지는가에 명백해야만 합니다.

⑤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메시아(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약속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일련(一連)의 사건임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명을 완수하셔야만 성령이 임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점을,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심)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요 16:7)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었다” 하고 임무를 완수하신 후 떠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행 1:5)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도 행전 1장에서 주님은 승천하셨고, 2장에서 성령은 강림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임무교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을 2:28, 행 2:17) 하신 또 다른 아버지의 약속은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⑤ 그리하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돌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12) 한 “영적 추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셋째 단원(13-17) 아버지 하나님의 인 치신 자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한 대”(13).

① 본 단원은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세례”란 죄인이기에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찌하여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15). 이것이 이 질문에 대한 정답입니다. “의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빌 2:6-8) 하신 것입니다. 그 의미 몇 가지를 생각해보겠습니다.

② 첫째는, 우리와의 동일화(同一化)를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표자(代表者)가 되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히 2:17)

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갈 4:4-5)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 나신” 주님은 세례만이 아니라 할례의 수종자(롬 15:8)도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죄인들의 대표자 신분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③ 둘째는, 주님이 받으신 “물세례”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눅 12:50) 하신 궁극적인 세례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물세례만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었던 것입니다.

④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16-17). ㉠ 먼저 이 말씀 안에는 누구누구가 계시되어 있는가?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과, 그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 삼위 하나님께서 회우(會遇)하고 계시는 장엄하고 비할 데 없이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왜 성 하나님께서 만나고 계시는가?

⑤ 이는 예수께서 메시아의 사명을 시작하시기 위한 일종의 위임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아버지의 인(印) 침을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印) 치신 자니라”(요 6:27) 말씀하십니다.

⑥ 우리는 좀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첫 창조 사역 때에도, “하나님, 하나님의 신, 빛 되시는 그리스도”(창 1:1-3), 삼위 하나님의 동역 하심이 있으셨으며,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 삼위 하나님께서 만나고 계시다는 것은, 재창조의 사역에 있어서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관여하고 계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성부, 성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롬 8:9)이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아는 자라면 여섯 날개를 가진 스랍들처럼, 그 들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 들로는 발을 가리고, 그 들로는 날면서(춤추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사 6:2-3) 하고 찬양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⑦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4:1절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싸움을 싸우시려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요 6:29).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막 10:38) 하고 물으십니다.